

한 국 어 판

True Peace

Vol. 38

TRUE PARENTS' MESSAGE AND NEWS

天一國 11年

天曆 8월

2023년 양력 9월

권두언

참부모님 말씀

참부모님 동정

특집

HJ NEWS

현장소식

통일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

천지인참부모님 초청 전국 대교회장 특별집회 섭리의 완성을 위한 진실

문정아양 첫 돌잔치

2023 캄보디아 국제지도자회의(ILC)

송용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계회장 세계순회(신아시아태평양)

2023 피스로드 통일대장정



통일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

양창식 전주평화연합 세계의장



사랑하는 전 세계 지도자, 축복가정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버모님께서 지난 5월 9일 새로운 조직을 편성하시면서 그동안 참버모님께서 닦아오신 UPF의 세계적 기반을 모두 한국으로 가져와 평화적인 남북통일운동에 투입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아울러 국내에서는 1백만명의 평화대사 확보, 나아가 1천만명의 서포터를 확보하는 동시에 1만 2천여 명의 남북통일 강사를 양성해가는 대대적인 통일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남북통일은 한국의 운명이요, 하늘섭리의 완성을 향한 최후의 선악 투쟁입니다.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무신론(유물론, 주체사상)과 유신론(하나님주의 두익사상)의 일대 사상전이 될 것입니다. 통일은 반드시 남과 북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자유평화통일이어야 합니다.

참버모님께서 1991년 직접 북한을 방문하시어 김일성 주석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념과 체제를 뛰어넘어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길을 위한 4개 조항의 합의문을 발표하셨습니다. 그 핵심은 남북한의 불가침조약과 북한 핵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내용이었습니

다. 참버모님께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을 몸소 실천하시며, 체제와 이념을 뛰어넘어 남과 북이 함께 사는 길을 모색하자고 제안하신 것입니다.

6.25 전쟁으로 남과 북으로 찢어지게 된 이산가족의 수는 약 1천만여 명이며, 지금 그 1세대들은 60년 넘게 서로 생사도 알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며 인권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남과 북은 조건 없는 대화의 창을 열고 관광, 스포츠 분야의 문화교류 및 상호경제협력 등 비정치적인 교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남한의 경제력과 기술력, 북한의 무한한 자원과 양질의 노동력이 합하여질 때, 비로소 북한은 계획경제로 10년 안에 중진국 대열에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남북이 통일되면 한반도는 즉시 국토의 크기와 경제력 군사력에서 독일, 프랑스, 영국에 버금가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참버모님 양위분의 기본적인 통일방안은 참사랑의 통일론입니다. 한편으로는 북한의 주체사상의 내용과 문제점을 비판하시면서 그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시고 계십니다.

“밥이 사랑이다”를 실천하는 자세야말로 조건 없이 북한 동포들에게 참사랑을 퍼부어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야곱이 자기를 죽이려는 형 에서에게 조건 없이 가진 것을 다 퍼주었을 때에 에서의 강팍했던 마음이 풀어지고 원수 같았던 형제가 부모를 중심으로 다시 만날 수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남과 북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한 사람이 남한 사람보다 북한 사람을 더 사랑할 때, 북한 사람이 북한 사람보다 남한 사람을 더 사랑할 때 진정한 참사랑에 의한 통일이 어느 날 갑자기 산사태처럼 다가올 것입니다.

‘진인사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땅에서 사람이 노력을 다하다 보면 하늘부모님의 섭리에 의해 통일의 대하 드라마가 남북한의 미래 앞에 찬연히 펼쳐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전 세계 지도자,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전 세계가 참버모님께서 소원하시는 그날을 향해 전진 또 전진을 다짐하며, 비전 2025를 외치고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최일선에 서 있음을 명심하시고 천상천하 천지인참버모님의 섭리에 24시간 정렬하시어 천운이 하늘 조국을, 통일된 조국의 모멘텀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통일의 용사가 됩시다. 통일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CONTENTS



04



06

권두언

- 02 통일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
양창식 천주평화연합 세계의장

특집 1

- 12 2023 캄보디아 국제지도자회의(ILC)
16 캄보디아 총선 선거감시위원단

HJ NEWS

- 18 송용천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
세계회장 세계순회
(신아시아태평양)

특집 2

- 22 비전 2025
한반도 평화통일을 향하여
양창식 천주평화연합 세계의장

현장소식

- 28 2023 피스로드 통일대장정
30 2023 하계수련

신미국

- 35 신미국 천심원 봉헌식 및 특별정성

참부모님 말씀

- 04 한반도와 환태평양문명
천성경 제10편 제3장 4절
06 섭리의 완성을 위한 진실
천지인참부모님 초청
전국 대교회장 특별집회

참부모님 동성

- 08 문정아양 첫 돌잔치
10 대만 21일 수련생 특별집회

신중남미

- 39 하이난 '그림자 없는 삶'
국제 청년 워크숍
41 코스타리카에 영원히 잠들다
43 파라과이 신임 대통령 취임식 경축
UPF 초청

신아프리카

- 45 청년 선교사 양성과정 4기 수료식

효정증거

- 46 1975년 선교사에게 바치는 헌사
크리스텔 베르너, 폴 베르너 가정





한반도와 환태평양문명

제10편 평화사상 제3장 세계평화 실현 방안 4절 남북통일과 세계평화

문명은 반도를 중심삼고 발생합니다. 반도를 중심삼고 해양문명과 대륙문명이 교류하고 연합되어서 문명이 발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 반도라든가 이태리 반도, 스페인 반도를 중심삼고 문명권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세계사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반도가 아시아에 있는 인도차이나반도와 한반도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대운세에 따라 서양문명과 동양문명이 절충해 들어오는데, 이들은 어차피 하나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부딪치느냐? 세계적인 운세를

중심삼은 태평양문명권 내에서 중심이 될 수 있는 섬나라와 반도와 대륙이 연결된 곳에서 뒤넘기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적 중심지역으로 요새지와 같은 곳이 한반도입니다. 이것은 지정학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민족의 시련은 이 민족 자체만의 것이 아니고 섭리적인 것이며, 하나님은 이 민족이 이것을 극복하기를 고대하고 계십니다. 세계사의 총합적 유산이라 일컬을 수 있는 동과 서, 남과 북, 정신과 물질, 유심과 유물의 대결과 혼돈이 집약되

어 한반도에서 소용돌이치는 것도 마치 새 시대를 잉태한 산모의 몸부림과도 같은 것입니다. 한민족의 민족적 국가적 어려움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떠나서는 해결할 수 없으며, 한국 단독으로서가 아니라 세계와의 관련 속에서만 해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민족은 이제 하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세계의 정신계를 지도할 목적으로 보내신 분을 따르고 고난을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세계문명은 틀림없이 아시아를 찾아옵니다. 태평양문명권 시대가 도래한다

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과학을 연구하는 저명한 학자들은 물론이요, 과학계의 학자들까지도 ‘태평양문명권 시대가 와야 한다. 역사적 귀추는 그렇게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벌써 40년 전부터 그러한 시대가 온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것이 어느 나라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선생님은 대한민국이 주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태평양문명권 시대가 옵니다. 미국 일본 한국 중국 소련을 중심으로 싸움판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문명과 문화의 배경에서 준비하지 않는 나라는 퇴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첨단에서 서서 준비한 사나이가 선생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을 열고 미국을 열고 중국을 열고 소련을 엮었습니다. 그런 선생님과 미국 사람들이 손을 잡고 하나되어 큰일을 하는 것은 앞으로 미국과 세계, 태평양문명권에서 공동문명권을 쟁취해 들어가는 하나의 조건이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희망적입니다.

21세기에 바랄 수 있는 비전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평화의 세계, 통일의 세계, 하나의 세계입니다. 세계도 하나의 새로운 평화의 세계, 통일의 세계를 바라보고 있고, 우리 민족도 남북통일을

바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 자신은 어떠냐? 세계에 평화가 아무리 찾아왔다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분단되어 위협수위를 넘는 입장에 있다면 우리나라는 세계평화에 대해서 상관할 수 없습니다. 남북통일을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우리 개인에 있어서 몸과 마음이 갈등하는 자리에 있다면, 남북이 통일된 평화의 대한민국이 나 자신에게 이상의 국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계의 평화가 있기 전에 나라의 평화를 준비해야 되고, 나라의 평화가 오기 전에 개인의 평화를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찾아지면 세계복귀는 순식간에 됩니다. 한 나라에서 세 나라만 넘게 될 때에는 네 나라가 됩니다. 그러면 세계에 사위기대 국가의 형태가 갖추어지기 때문에 사탄이 침범할 수 없는 사방의 방어성이 쌓아지게 됩니다. 그때에 비로소 평화의 세계, 천국의 옥토가 형성됩니다. 그것이 통일교회가 찾아 나가는 본향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정열을 바치고, 우리의 젊은 생을 투입하기 위해서 모인 무리가 통일의 무리입니다. 생의 노정을 가로막고 있는 악의 세력이 드세더라도 그것을 분쇄하고 해부해서, 살살이 뿌리를 뽑아서 한때에 처단하기

위한 결의를 다짐해야 할 사람들이 통일의 무리입니다.

피어린 역사적인 길을 개척해 나온 그 생활이 슬프고 비참하였지만, 그것이 자기 일신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민족의 해방과 세계의 평화를 위한 하늘의 사자로서 그런 일을 했다면 이는 길이길이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그 실적이 드높이 빛나게 될 때에 이 터전을 통하여 남북한의 해방은 물론이요, 아시아의 새로운 해방의 종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고, 세계 해방의 기운이 여기서부터 솟구쳐 오를 것입니다.

우리의 과제는 조국통일입니다. 이는 우리의 숙명이요, 우리가 생애를 바쳐 이룩하여야 할 필생의 성업입니다. 선생님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통일의 성업을 이루기 위한 일념으로 살아왔고, 나머지 일생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일념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통일을 염원하는 남북한 7천만 겨레 모두는 이제부터 갈등과 투쟁을 종식시키고, 화해와 사랑으로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일에 거족적으로 나서 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총칼을 녹여 쟁기와 보습을 만들 때가 지금이고, 이제 통일 조국의 밝은 신세기를 맞이할 준비를 서둘러야 되겠습니다. 





섭리의 완성을 위한 진실

천지인참부모님 초청 전국 대교회장 특별집회
천일국 11년 천력 6월 26일 (2023.08.12) | 천정궁

창조주 하늘부모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조상이 될 수 있는 남자와 여자에게 성장 기간이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완성을 위한 성장 기간입니다. 인간시조가 되어야 할 그들은 하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타락하여 에덴에서 쫓겨나 오늘날의 타락 인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창조주께서는 당신의 창조원칙에 따라 꿈을 실현하는 데 반드시 인간과 함께하려 하시기에 탕감복귀, 구원섭리역사를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택해 나오시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쳐 당신이 품을 수 있는 혈통을 찾으시고, 국가적 환경을 이룰 수 있는 때를 기다려 4천 년 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켰습니다.

창조원칙으로 볼 때 독생자만 가지고는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늘 섭리의 완성을 보기 위해서는 2천 년 전에 탄생하지 않았던 독생녀가 등장해야 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몬 이스라엘 민족은 치러야 할 탕감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는 하늘이 독생녀를 탄생시킬 수 없습니다. 하늘은 독생녀를 탄생시킬 수 있는 선민을 찾아 길러 나오셨는데 그것이 한민족입니다.

독생녀는 반드시 기독교 기반 안에서 탄생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의 기독교는 평양을 중심삼고 미국의 장로회가 들어와서 성령의 불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내 외조모 조원모 할머니, 흥순애 대모님과 나까지 3대에 걸친 기독교 환경권이 이루어졌고, 당시 기독교 목

사의 축도를 받은 자리에서 내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기독교권은 참부모를 위해서 하늘이 준비한 것입니다. 참부모가 지상에 있는 동안 기독교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섭리의 완성을 위해 반드시 진실이 밝혀져야 되고, 거기에서 하늘이 함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하늘의 섭리를 놓고 볼 때, 한시가 바쁘고 촌음을 아껴야 하는 이때에 있어서 과거에 53년간 무지했던 것을 탈피하기 위한 한마디를 하기가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오늘의 여러분은 내가 독생녀인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독생녀를 만나지 못했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기독교권을 품고 하나가 돼서 국가복귀를 해야만 합니다.

가정연합과 UPF가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하늘은 더 이상 기다려 주시지 않습니다. 책임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선민으로서의 책임을 못 하면 탕감이 따르게 되는데 그것은 다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천일국시대에는 원리강의보다는 창조주의 본질, 예수님의 본질을 설명하면서 독생녀 참어머니와 함께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한 강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과, 기독교의 마지막 소원인 꿈을 이루기 위해 기독교인들이 알아야 할 것은 독생녀입니다. 알겠습니까?(네) ㄸ



문정아양 첫 돌잔치

지난해 (양) 8월에 태어난 문신희·문유메 가정의 문정아양 돌잔치가 천일국 11년 천력 7월 6일(양 8.21) HJ천주천보 수련원 효정연에서 성대하게 진행됐다. 이날 돌 잔치에는 참가정 및 천일국 지도자가 참석하여 문정아양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다.





대만 21일 수련생 특별집회

참부모님의 참사랑 속에서 대만 21일 수련생 특별집회가 천일국 11년 천력 6월 25일(양 8.11) 천정궁에서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날 참어머님께서 수련생들에게 꿈에도 잊지 못할 축복의 말씀을 내려 주셨다.



대만의 ‘대’ 자가 무슨 ‘대’입니까? ‘큰 대(大)’가 아니고 ‘등대’ 할 때 ‘대(臺)’ 자라고 하는데, 대만에서 온 여러분은 ‘천일국시대에 세계 복귀를 위한 빛이 되어야 하는 등대’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나를 ‘왕엄마’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딸입니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나는 미래의 큰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대만이라는 섬나라는 작지만 여러분은 세계를 보고, 참부모님의 섭리 가운데 중심인물로서, 세계를 지도하는 지도자로 아름답게 성장해 주기를 바랍니다. 고맙고, 자랑스럽고, 사랑합니다! 



23 夏季神台灣孝情天寶 21日特別修鍊會
天一國11年天曆6月6日~ 26日(2023年7月23日~ 8月12日)

2023 캄보디아 국제지도자회의(ILC)



2023년 캄보디아 국제지도자회의(이하 ILC)가 천주평화연합(UPF) 산하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과 캄보디아 아시아비전연구소 공동주최로 천일국 11년 천력 6월 5일(양 7.22) 캄보디아 프놈펜 소재 소카프놈펜호텔에서 개최됐다.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등 4개 국어로 생중계된 캄보디아 ILC 개회식은 국제 관용과 평화를 위한 캄보디아 정부의 지원을 받아 전·현직 정상 7명을 포함해 50개국에서 250여 명의 회원국 참여 속에 3개의 세션으로 성황리에 진행됐다.

참어머님께서는 창설자 연설(영상)을 통해 “아시아 대륙을 통해 많은 종교가 탄생됐다. 종교의 목적은 선을 향해서 평화세계를 이루자는 것인데, 각기 다른 교리의 종교가 하나로 통일되려면 인간 중심으로는 안된다. 우주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를 모신 자리에서만 통일되고 세계평화가 올 수 있다.”고 강조하셨다.

UPF는 2005년 9월 12일 미국 뉴욕 링컨센터에서 문선명·한학자 총재에 의해 지구촌 분쟁을 종식하고 평화세계 실현이라는 목표 아래 창설됐다. 창립 이후 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 협의 지위로 활동해 오다 2018년 7월 24일에는 UN에 등록된 5,000여 개의 민간 비영리단체(NGO) 가운데 150여 개 단체만이 부여 받은 최상위 등급인 포괄적 협의 지위로 승격되어 국제평화운동을 지속하고 있다. 현재 UPF는 전 세계 194개국에 지부가 두고 매년 평화를 위한 세계 공동의 활동 방향과 사업을 결정하기 위해 월드서밋과 ILC를 개최하고 있으며, 공생·공영·공의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초종교·초국가적 굿 거버넌스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캄보디아 ILC는 지난 5월의 ‘평화서밋 2023’의 연속선상에서 열리는 대회로서 ‘신아시아태평양 문명권 시대’를 맞이하여 ‘아시아태평양 유니언’의 비전과 가치에 기반을 둔 글로벌 질서와 평화 구축을 제공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1세션 <평화와 민주주의>

대회사



에크 낫 다칼 공동 조직위원 의장(네팔 연방의회 의원)

과거의 아픔을 넘어 화해와 치유를 지향하는 캄보디아 ILC 행사를 통해 우리는 상호 간의 신뢰와 존중을 증진시키며 유대감을 형성하고, 평화와 민주주의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세계적인 담론의 장을 마련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숙 시파나 아시아비전연구소 의장(캄보디아 왕실 정부 수석 고문)

세계평화를 이루기 위해 적극 활동에 앞장서며 아시아비전연구소 또한 평화 관련 지지에 동참할 수 있도록 협조해준 UPF에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지난 몇 년간 캄보디아는 아시아 서밋을 비롯한 국제 스포츠 행사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세계평화에 발돋움할 수 있었음에 기쁘게 생각합니다. 캄보디아는 훈센 총리의 리더십 속에 수많은 국제사회와의 행사를 경험하며, 더욱더 세계 발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확실히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총선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들이 평화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아시아를 넘은 세계 평화 기여를 위한 이번 ILC에 함께 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진심 어린 마음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개회사



양창식 UPF 세계의장

오늘날 외교관계 협의회의 '세계 갈등 추적 연구'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최소 27곳에서 갈등과 내전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유엔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종교, 이데올로기, 인종 간의 갈등이 내전 및 지역 갈등을 키우는 데 주원인으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UPF 공동설립자이신 문선명·한학자 총재님은 평화의 시작은 창조주이신 하늘부모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애천·애인·애국, 공생·공영·공의의 원칙을 강조하셨습니다. 하늘부모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고 전 인류가 살아간다면 전 세계 인류는 하늘부모님 아래 형제, 자매가 되는 동시에 평화세계가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UPF는 문선명·한학자 총재님 양위분께서 말씀하신 세계평화와 한반도 평화통일의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기조연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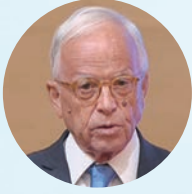
댄 버튼 세계의원연합 회장(전 미국 하원의원)

오늘날 전 세계 곳곳에서는 크고 작은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여러 방면에서 세계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사람들의 손길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UPF 공동창설자인 한학자 총재님은 인류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전 생애에 걸쳐 헌신해 나오셨으며, 그와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 이 순간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평화 세계 건설임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캄보디아 ILC에 참석하신 모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방향과 정렬되신 한학자 총재님의 깊은 심정과 말씀을 받아, 전 세계 모든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해나가는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테프 농 캄보디아 상원 제2 부의장

훈센 수상은 평화 회담과 윈-윈 정책을 통해 캄보디아의 장기간의 내전을 끝내기 위한 정치적 해결책을 처음으로 시행하여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평화를 실현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함께 협력하여 해결책을 찾고 결의한다면 평화는 하루속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ILC는 평화를 위한 인류의 위대한 연대가 될 것입니다. 금번 회의가 큰 성과를 이루어 진실한 평화와 발전이 가득한 세상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럽 대표단) 베르너 파슬라벤드 오스트리아 전 국방장관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난 30년 이상 유지되어왔던 유럽 안보 질서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 회원국들은 대륙의 전략적, 정치적 상황을 함께 논의, 결정하고 성공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이 아세안과 같은 세계의 다른 지역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동남아 지역의 안보, 안정, 발전과 아세안 국가의 현재, 그리고 미래의 주권 및 독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평화와 안정은 전 세계 인류의 이익을 위한 필수 전제조건이며, 따라서 우리가 함께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머리를 맞대는 것은 공통 관심사입니다.

2세션 <평화, 민주주의, 굿 거버넌스 및 발전: 아시아태평양과 세계평화 문화를 향하여>

기조연설



(아프리카 대표단) 굿렉 조나단 나이지리아 전 대통령

ILC가 캄보디아에서 개최된다는 것은 세계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세계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아시아 지도자들과 UPF의 헌신과 열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 세계의 잠재적인 전환점이자 변혁의 순간이 되는 ILC를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순간 세계평화정상연합(ISCP)의 이념인 공생·공영·공의를 촉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의, 공정, 법치에 기반한 민주주의는 국가가 평화롭게 부상하고 더 빠른 경제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도자분들이 이러한 개념을 수용하고 각자의 관할권에서 분쟁 관리와 해결을 위한 모델로 변환하도록 제가 의장을 맡은 아프리카 ISCP은 중단없이 장려할 것입니다.



(라틴아메리카 대표단) 지미 모랄레스 과테말라 전 대통령

평화란 단순히 전쟁의 부재가 아닙니다. 평화란 타인과 그들의 신념과 그들의 기관들과 조화롭게 공존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민주주의는 자신이 속한 사회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모든 사람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화와 민주주의는 매일 유지되고 튼튼하게 다져야 하는 일상적인 실천입니다. 세계평화와 민주주의, 국가 간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전 인류가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UPF의 공동창설자인 한학자 총재님을 비롯하여 UPF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전합니다.



(파키스탄 대표단) 유수프 라자 길라니 파키스탄 전 총리

파키스탄이 최근 큰 발전을 볼 수 있었던 것은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정부가 재건되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와 안보, 자유의 신념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더 나아가 전 세계가 평화, 안정, 번영의 핵심 축을 유지하는 힘의 원천이라고 생각됩니다. UPF의 공동창설자이신 한학자 총재님의 지대한 관심 속에 이러한 자리가 마련된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팔 대표단) 샤르마 올리 네팔 전 총리

평화와 민주주의는 서로 얹혀 있습니다. 우리의 민주적 행사가 향상됨에 따라, 우리의 민주적 기관이 더 탄탄해지며, 종합적인 발전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그것은 우리와 함께 종합적 평화에 대한 우리의 비전과 더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러한 발전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희망과 꿈, 미래에 대한 기대와 열망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저는

다시 한번 주최자 측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전 세계의 나라들과 함께 일하고, 민주주의와 평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서로 배우게 될 것을 진심으로 고대합니다.

특별연설



(스리랑카 대표단)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 스리랑카 전 대통령

UPF의 목표인 평화롭고 번영한 인류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법과 전략적 방향 전환을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강력한 국가는 강력한 국민을 만들어냅니다. 법치는 좋은 시민을 양성합니다. 평화와 민주주의는 거버넌스 과정에서 시민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나라를 분열시키는 이유는 많지만, 나라를 통합해야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용기를 내어 평화와 민주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남미 대표단) 안드레스 파스트라나 아랑고 콜롬비아 전 대통령

평화, 민주주의, 좋은 통치, 그리고 발전을 향한 우리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평화, 민주주의, 통치 그리고 개발은 쉽지 않지만,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가장 어려운 도전을 이겨내어 함께 지속해서 평화와 민주주의, 번영과 정의로운 세계 건설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대표단) 송용천 가정연합 세계회장

인류는 전례가 없는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종교 간, 인종 간의 갈등, 경제적 양극화 현상 및 지구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인류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인류의 행복을 위해 발전했던 과학마저 새로운 측면에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금번 캄보디아 ILC는 UPF의 공동창설자 되시는 한학자 총재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세계지도자와 석학들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공생·공영·공의의 길을 통한 인류의 다양성 존중과 국제협력을 끌어낸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캄보디아 ILC가 더 나은 평화로운 미래를 열어 갈 수 있도록, 각국을 대표하는 국가지도자와 석학들의 경험과 통찰력 깊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온 인류의 염원인 평화 세계를 향한 비전을 제시하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3세션 <평화 이니셔티브 선언' 및 '국제관용과 평화의회(IPTP) 회장 이·취임식>

3세션에서는 마이클 젠킨스 UPF 세계회장의 '평화선언(이니셔티브)' 발표에 이어 심 비레크 아시아비전연구소 전략고문(원 원 정책과 캄보디아 평화)과 체앙 바나리스 아시아비전연구소 소장(평화 선언과 천주평화헌장)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이후 로스 로버트슨 뉴질랜드 의회 전 부의장과 패트리샤 라론데 유럽의회 전 의원, 호리 마사이치 가정연합 아시아태평양대륙회장이 주제 발표를 했다.

이날 행사의 마지막 순서로 쿠온 수다리 캄보디아 국회 부의장 주재 아래 '국제관용과 평화의회 회장 이·취임식'이 열렸다. IPTP는 아흐메드 빈 모하메드 알자르완 회장이 이임하고, 수오스 야라 캄보디아 국회 외교분과위원장이 신임회장으로 임명됐다.

ILC 캄보디아는 아시아태평양 문명권 시대를 열기 위한 참여머님의 해안 속에 전 세계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주제를 통해 민주주의 수호와 평화를 위한 사안들에 적극적 관심과 응원, 행보를 보이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캄보디아 총선 선거감시위원단



제7회 캄보디아 총선의 공정한 진행을 지원하기 위한 선거감시위원단 파견이 천일국 11년 천력 6월 6일 (양 7.23) 진행됐다.

캄보디아 정부 초청으로 천주평화연합 지도자 125명을 포함해 54개국에서 423명의 지도자들은 국가 정상급 예우를 받으며 투표소 참관 활동 등을 함께 했다. 선거감시위원단의 목적은 캄보디아 국회의원 총선이 공정선거 및 투명성에 맞춰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지지하며, 향후 아시아 평화와 협력을 이끄는 데 있다.

캄보디아 총선은 1993년 민주적 선거가 복원된 이래 18개의 당에서 125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수도 및 지방을 포괄한 25개 권역별 전원 비례대표제로 이뤄진다.

사실상 금번 캄보디아 총선은 훈센이 장남에게 권력 기반을 이양하는 본격적인 작업이라는 부정적 인식도 있지만 좀더 면밀히 살펴보면, 훈센 총리는 단순 권력 세습이 아닌, 정치·경제·사회 정책에 기초를 유지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중점을 둔 것임을 알 수 있다.



추후 캄보디아 신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완전 극복과 관광산업 회복에 따라 경제를 본격적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뿐만 아니라 최저개발국(LDC) 조기 졸업, 경제 및 산업 다변화, 디지털 대전환, 기후변화 대응 등의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일찍이 참아버님께서는 “한국민족은 단일민족으로서 지금까지 서양 사람한테 침범을 받았고, 한대권문명·열대권문명·온대권문명으로부터 다 침범을 받았다. 지금 한국정세가 세계적인 초점이 돼 있다. 거기에는 미국도 걸려 있고, 소련도 걸려 있고, 아시아도 걸려 있다. 아시아문명과 민주세계의 문명 그리고 공산세계의 문명이 한국에 걸려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한국에 열대문명권·인도문명권·불교문명권·유교문명권·온대문명권·서구문명권·한대문명권이 다 들어가 있다는 뜻이다.”고 말씀하셨다.

참어머님께서는 참아버님 천주성화 이후 신세계 안착을 위해 세계순회를 하시며, 하늘부모님과 참아버님과의 마지막 약속, 아무리 뜻이 힘들어도 내 당대에 끝을 보겠다는 약속을 지키시고자 성체의 무리를 가하시고 계신다. 입술이 헐고 입술이 부르트셔도, 다리가 통통하게 붓고 움직이지 않으셔도, 하늘부모님의 나라 천일국 기원절을 선포하신 이후 비전 2020, 천일국 안착을 위한 7년 노정을 승리하시며 그 터전 위에 하늘 섭리의 진실, 독생녀 참어머님의 위상과 본질 그리고 그 책임에 대한 말씀을 주시며, 하나님을 하늘부모님으로 모실 수 있는 ‘하늘부모님성회’를 천명하셨다. 아울러 이 시대 전 인류가 독생녀 참어머님과 하나된 가운데 하늘부모님의 뜻, 대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신통일세계를 이루는데 실질적인 효정의 심정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일깨워 주고 계신다.

오늘날 아시아태평양을 중심한 새로운 질서가 수립되는 역사적 대전환기를 맞아 캄보디아 총선은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다.

캄보디아 총선 선거감시위원단을 위해 먼 길 마다하지 않고 모인 다수의 전·현직 지도자들은 잔혹한 현장에서 참어머님의 진정한 평화의 의미를 되돌아보며 인류 구원을 향한 하늘부모님과 천지인참부모님의 꿈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송용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계회장 세계순회(신아시아태평양)

송용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계회장 세계순회가 신아시아태평양을 중심으로 천일국 11년 천력 6월 3일부터 12일까지(양 7.20~29) 국제지도자회의(ILC), 캄보디아 총선 선거감시위원단, 신아시아태평양 지도자 총회, YSP 총회, 식구특별집회 등의 내용으로 캄보디아 프놈펜과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됐다.

신아시아태평양 지도자 총회

ILC와 캄보디아 총선 선거감시위원단에 이어 진행된 신아시아태평양 세계순회 중 신아시아태평양 지도자 총회가 송용천 가정연합 세계회장, 양창식 UPF 세계의장, 각 대륙 지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 세션 I·II, 폐회식 순으로 마련됐다.

개회식은 환영사(호리 마사이치 신아시아태평양 대륙회장), 개회사(로버트 키틀 신아시아태평양 천의원장), 특별메시지(양창식 UPF 의장·호리모리코 WFWP 회장), 특별보고(마츠다 코지 IAYSP 회장), 기념촬영 순으로 이어졌다.

총회 세션 I 은 대륙주요기관(가정연합, UPF, WFWP, IAYSP) 현황보고 및 모범사례 발표로 진행됐다.

호리 마사이치 대륙회장은 신아시아태평양 가정연합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하며 “신아시아태평양은 세계본부와 하나되어 신 체계 구축은 물론 보다 투명한 재무 체계를 갖추고자 한다. 또한 교회성장을 위한 전도 전략을 위해 종교범위를 구분하여 정책을 수립할 것이며, 개개인의 신앙교육 및 성장을 위한 프로세스와 워크숍을 통해 참여머님께서 말씀하신 성과를 빠른 시일 내로 이루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에크낫 다갈 신아시아태평양 UPF 의장과 비파 타베테르마쿨 신아시아태평양 WFWP 회장은 “가정연합의 우호 단체인 UPF와 WFWP는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 증진을 위해 관련 기관과 협업하여 다양한 교육, 워크숍, 봉사활동,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신아시아태평양이 하늘부모님과 참여머님께서 바라시는 뜻을 완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발전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로니 소두스타 신아시아태평양 IAYSP 회장은 “청년교육 및 미래인재 양성 교육을 위해 보다 청년들이 꿈꿀 수 있는 조직, 사회, 대륙을 위한 콘텐츠를 마련하겠다.”며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세션 II는 총 3부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전도와 교회 성장전략>을 주제로 가장 먼저 호리 마사이치 신아시아태평양 대륙 회장이 전반적인 전략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기독교 환경을 가진 국가>인 필리핀, 호주와 오세아니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중앙아시아 등을 중심으로 전도와 교회성장 전략 사례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레오 안젤로 필리핀 가정연합 국가 회장은 필리핀 천심원기도회 및 천보수련회를 통한 내적 부흥 및 외적 부흥 사례를 통해 2023년 새 식구 전도 방안에 대한 확고한 결의를 내보였다.

로니 소두스타 신아시아태평양 ISYSP 회장은 “필리핀 YSP는 ‘애국청년 프로그램’을 통해 필리핀 국가와 NGO 단체 등과 원활한 관계를 맺는데 성공했다.”며, “이러한 개기는 추후 자연스럽게 가정연합이 통일무도, 순결운동, 승공사상, 피스 디자이너, 효정인성교육, 참가정 교육 및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유타카 호주와 오세아니아 지구장은 뉴호프 아카데미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보고하며 “학교는 참부모님의 애천애인애국의 건학이념에 따라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을 존경하고, 나라와 가정을 사랑하도록 교육하고 있다. 사회에서 운영되는 타학교도 있지만 학생, 부모, 선생님 그리고 VIP가 뉴호프를 선호하는 이유는 깨끗한 환경, 하나의 문화, 인성 교육을 통한 가치 충족이 사회적 기반과 신뢰관계를 자연스럽게 형성했기 때문이다.”며 “참어머님의 뜻에 의해 건립된 학교는 2019년 교육부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학교운영 권한, 교육 프로그램 확정 권한, 선생 및 지도부 인사 권한, 재정운영 결정 권한까지 갖게 되었다. 이러한 내용은 결과적으로 국가 건설 기반과 연결된다.”고 전했다.



2부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중앙아시아 등 무슬림 환경을 가진 국가의 전도 및 교회성장 전략 사례로 발표됐다.

라이 핑경 말레이시아 국가 회장은 “한국의 청평이 전 세계적으로 제일의 조건임을 발견한 풍수 지도자와 다수의 국가 VIP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교육과 세미나를 통해 천주청평수련원의 찬양역사, 조상해원식, 조상축복식, 성화식 문화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 이는 필시 하늘부모님과 참여머님의 보호하심 아래 우리의 문화가 저절로 세상의 관심을 받게 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리나 다스 파키스탄 국가지도자 대행은 “참여머님의 자서전을 파키스탄어로 직접 번역하며 참여머님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다. 원리교육이 금지되어 있는 무슬림 국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참여머님 자서전을 통한 평화교육, 자서전 보급활동이다. 이러한 활동은 아직 소수에 불과하지만 전도활동과 기성축복 운동까지 이어지며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타 종교를 전도하는 일은 쉽지 않지만 참여머님 말씀과 가정연합의 문화는 사회와 세계가 원하는 방향을 오롯이 제시하기 어떻게든 그들과 섞이고 하나되는 개기가 마련된다.”고 말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천심원 특별철야기도를 통해 참여머님을 위해, 한반도 통일을 위해, 미션 국가를 위해 참여머님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기를 간절히 기도 올리며 첫날 일정을 마무리했다.

다음날, 3부는 정치적 영향력이 큰 국가인 중국과 홍콩(가치쿠리 마사타테 가정연합 중화권 지구장), 인도(크리수나 아드히카리 인도 국가 지도자), 태국(카물 타나노파반 태국 국가 지도자), 캄보디아(사이토 하지메 태국 국가지도자), 네팔(산토시 파울)을 중심으로 전도와 교회성장 전략 및 성공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특별히 이날 총회 이후 폐회식은 신입 국가 회장 임명식이 진행됐다.

호리 마사이치 대륙회장은 폐회사를 통해 참여머님을 중심하고 전략을 수립한 지도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우리에게는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하루속히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 참여머님께 보여드리어야 한다.”며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참여머님 모시고 전진 또 전진하는 길밖에 없다. 천운을 갖고 현장에 돌아가 최선을 다하자”고 호소했다.

이후 그레고리 스톤 UPF 아시아 태평양 지역 사무차장의 폐회기도와 탕 김스루이 IAYSP 신아시아태평양 대륙 부회장의 역만세를 끝으로 지도자 총회 전체 일정이 성료됐다.

YSP 총회

다음날(양 7.27) 송용천 가정연합 세계회장과 마츠다 코지 청년학생연합(YSP) 세계회장을 비롯한 세계 순회 팀은 YSP 총회 일정을 위해 필리핀 마닐라로 향했다.

송용천 가정연합 세계회장과 순회팀은 YSP 총회를 위해 실무자 미팅(양 7.28)을 진행한 뒤 필리핀 본부로 이동했다.

이날 총회는 미래세대를 이끄는 주역인 필리핀 YSP가 애국청년 프로그램의 활동전략 및 성공사례를 통해 필리핀 YSP의 성장 및 비전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로니 소두스타 신아시아태평양 대륙 부회장은 “과거 태풍이 필리핀을 엄습했을 때 참여머님께서 많은 지원과 희망으로 온라인 청년희망전진대회를 개최해 주셨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물론 NGO 단체와 연결되었고, 현재 YSP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을 통해 필리핀 국가 복귀를 위한 결실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츠다 코지 YSP 세계회장은 “각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인재를 육성하여 정부와 각 단체와 파트너십 구축하여 YSP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설계하고 있다. 참여머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 사회와 세계에 공헌할 수 있는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일은 향후 각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송용천 가정연합 세계회장은 “청년들이 장차 천국을 세우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 시대가 바라는 때를 알고 하늘부모님과 참여머님께서 바라시는 하늘 섭리에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식구특별집회

같은 날 저녁에 진행된 식구특별집회는 신아시아태평양 순회 일정의 대미를 장식했다.

특별집회를 통해 송용천 가정연합 세계회장은 “한 사람의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력보다는 모두가 동참하는 집단지성과 효율적인 조직의 힘으로 목회자와 식구가 하나 된다면, 신령과 진리 속에 초창기 교회처럼 뜨거운 참사랑 실천으로 행복한 가정, 참사랑이 넘치는 건강한 교회, 지역사회는 추후 국민 전체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환경권을 만들 수 있다.”며 “반드시 폭발적 전도성장, 실질적 교회성장으로 국가복귀의 기적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짧은 일정 속에 진행된 신아시아태평양 순회 속에서 송용천 가정연합 세계회장을 비롯한 양창식 UPF 의장, 마츠다 코지 YSP 회장과 세계순회팀들은 세계 곳곳을 순방하는 데 힘을 아끼지 않으며 강행군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금번 세계순회를 기반으로 전 세계 식구들은 새 시대 새 역사의 출발을 말씀하신 참여머님의 꿈이 하루 속히 안착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함께 전진하고 있다. 



비전 2025 한반도 평화통일을 향하여

양창식 천주평화연합 세계의장



2023년은 한국인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 해이다. 한국전 정전 70주년이요, 한미방위조약 체결 7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일찍이 참부모님께서 공산주의는 70년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하셨는데 실제로 1917년 볼셰비키 혁명 이후 1922년에 처음으로 공산주의 국가형태를 갖춘 소련이 연방 설립 68년 11개월 26일만에 해체되었다. 1991년 12월 26일에 고르바초프에 의해 연방 해체를 선언한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분단된 나라는 독일, 베트남, 예멘 그리고 한국이었는데 추후 한국을 제외한 나라들은 한 나라로 통일되었다. 독일은 서독에 의해 자유민주주의로 베트남은 월맹에 의해 사회주의 이념으로 통일이 된 것이다. 이제 인류 문명사는 분단 70년이 된 한반도를 주목하고 있다. 1300년 동안 하나의 민족이던 한반도가 열강들의 각축전의 희생양이 되면서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1945년 2차 세계대전의 종료와 함께 1910년부터 36년간 일본의 식민지하에 있던 한국도 해방을 맞이하였다. 한국은 하나님의 섭리로 볼 때 제3 이스라엘의 선조가 되어야 한다. 천지인참부모님 양위분이 탄생한 신앙의 조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 현대사의 흐름과 그 배경을 설명함으로 세계가정연합 식구들이 기도하고 주창하는 신한국통일의 섭리적 의미를 좀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한다.



역사 이래 처음으로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8월 9일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리틀보이가 투하되었다. 이후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의 주축국인 독일과 이태리의 항복에 이어 패전 및 항복할 의사를 미국측에 통보하였다. 한편 중국 관동지역에 있던 일본군을 두려워하며 2차 세계대전이 장기전으로 갈 것을 두려워한 미국은 소련에게 지속적으로 일본을 공격하기 위한 2차 세계대전 참전을 요청했으나 소련은 일본과 소련의 방위조약 등을 근거로 계속 주저하다가 미국의 결단에 의해 일본 히로시마에 처음으로 원자폭탄이 투하된 직후 일본의 패색이 짙어지자 소련은 8월 7일 일방적으로 대일참전 선포를 하고 곧바로 한반도로 진입하였다. 한 달 만에 무방비상태인 북한 전역을 점령하고 계속 남하를 강행하자 이제는 소련의 한반도 진입에 미국이 오히려 당황하기 시작하였다. 전통적으로 소련은 겨울에 얼지 않는 부동항을 찾아 한반도 북쪽을 늘 노리고 있었다.

일본 황제가 무조건 항복을 선언한 1945년 8월 15일 당시 미군은 필리핀과 오키나와에 주력군이 있었다. 일본이 항복 선언 하기 7일 전, 소련의 무차별 남하를 두려워한 미국은 즉각 소련과 협상을 시작했다. 당시 미국이 일본의 항복을 접수할 것을 기안하여 미국과 소련은 북위 38도선을 기준으로 북으로는 소련이 남으로는 미국이 각각 주둔하여 군정을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소련은 이미 평양 가까이까지 북한 전 지역을 점령한 상태에서 미국은 9월 9일에야 남한에 들어와 서울을 중심으로 3.8선 이남을 접수하였다. 이로부터 미국과 소련은 한반도를 각각 분할하여 관리할 것을 합의하였다. 소련은 33세의 젊은 청년 김성주를 당대의 애국자이자 지도자로 세우고 북한에 사회주의 정권 수립을 시작하였다. 한편 남한은 미국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하던 이승만이 귀국하여 건국을 준비하게 되었다.

1948년 8월 15일 3·8선 남쪽에는 미국을 우방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설립되고, 3·8선 북쪽에는 소련과 중국의 영향 아래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세워졌다. 그로부터 21개월 후인 1950년 6월 25일 소련의 스탈린과 중국의 모택동의 지원을 받아 북한은 전격적으로 남한을 침공하였다. 한편 미국은 소위 동북아시아 미국의 방어선에서 한반도를 제외하고 일본과 필리핀을 방어하는 소위 애치슨라인(미국 국무장관 딘 애치슨 발표)을 선언하였다. 그리고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일본의 패망으로 끝나면서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은 한국전쟁 1년 전에 완전히 철수하였다. 무방비 상태가 된 남한을 전격적으로 침범한 북한군은 3일 만에 서울을 함락하고 한 달 후에 낙동강을 중심으로 부산지역을 제외하고 모든 국토를 점령하였다.





유엔은 즉시 안전보장이사회를 열어 북한의 남침을 규정하고 유엔군 파견을 결의하였다. 당시 트루먼 대통령의 전격적인 명령으로 극동군 사령관 맥아더 장군이 한국전 참전에 동참하였다. 개전 일주일 후인 7월 1일 마침내 미군이 도착한 것이다. 1848년 유엔이 결성된 이후 최초의 유엔군 파견이 결정되었다. 5대 상임이사국 중 소련이 회의에 참전치 않아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유엔 참전이 결정된 것이다. 당시 소련이 불참한 이유는 내심 유럽에 대한 전략적 우위 확보를 위한 고도의 계산으로 미국의 한국 참전을 유도하였다는 정보가 유력하나, 결과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의 한국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강력한 기독교 자도자인 빌리 그래함 목사나 전쟁 발발 직후 트루먼에게 직접 전화하여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유민주주의의 한국을 구해야 한다며 파병 요청을 했다는 비하인드 스토리는 최근 공개되고 있다.

미국 트루먼 대통령은 만 70세가 된 백전노장 더글러스 맥아더 사령관을 극동군 사령관으로 한국전쟁의 지휘봉을 맡겼다. 맥아더 장군은 북한군의 허리를 공격해야 한다는 작전으로 지금의 국제공항이 있는 인천으로 상륙하는 작전을 세웠다. 함정 262척으로 75,000명의 병력을 동원하는 대대적인 작전이다. 9월 15일 감행되었던 인천상륙작전의 성공확률은 1/5000이었다. 깊은 조수간만의 차이, 착륙 지점인 바다 밑은 바위가 많고 수심이 얕아 함정에서 바로 육지로 상륙할 수 없어 보트를 이용해야 했다. 적군이 미리 알아차리면 뒤로 물러날 틈도 없이 전 병력이 바다에 수장도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극비작전으로 일부 한국군이 첩보 부대로 투입이 되어 착륙지점을 미리 확보한 뒤 신호로 비춰주는 사인에 의해 전광석화처럼 착륙 작전에 성공, 곧 바로 서울로 진격 13일 만에 빼앗겼던 서울을 수복하였다. 이날이 1950년 9월 28일이다. 마침내 빼앗겼던 서울을 3개월 만에 되찾은 것이다. 맥아더 장군은 차제에 공산군을 섬멸할 자세로 계속 북진을 감행, 압록강까지 진입했다. 한편 흥남작전에도 유엔군이 투입되었는데 그때 지휘관이 알렉산더 헤이그 육군 대위였다. 당시 공산 치하에서 흥남감옥에 계셨던 참아버님께서는 그 사건으로 구사일생으로 해방되셨다. 그날이 바로 1950년 10월 14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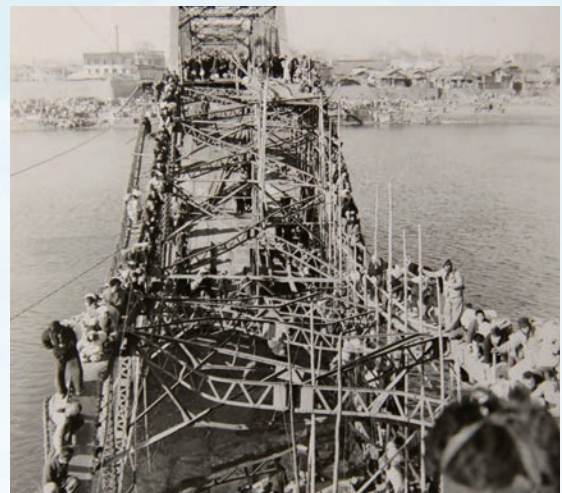
추후 헤이그 장군은 육군 대장으로 전역하였고 뒤에 국무장관이 되었다. 그가 타계하였을 때 참부모님께서는 특별히 성화식을 해주라는 축복을 주시어 당시 참가정 대표와 워싱턴 타임즈 대표와 함께 대륙회장으로서 본인이 함께 유족과 의논하에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간단한 절차로 성화식을 해 드렸다.

인천상륙작전 한 달 만에 맥아더 장군은 북한 전역을 장악한 셈이다. 다시 백만 중공군이 한국전에 투입이 되어 이번에는 유엔군이 후퇴하게 되었다. 양측의 치열한 전쟁이 계속되던 중에 협상이 시작되어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성립되었다. 3년 1개월의 치열한 전투에서 양측이 입은 전사, 부상, 행방불명자가 약 4백만이다. 투입된 유엔군이 연 210만이었으며, 그 중 미군만 해도 180만 이었다. 유엔군 중 사망자가 41,000이었으며 그 중 미군만 3만7천명이었다. 남북으로 갈라진 이산가족이 1천만명이 넘을 정도로 그 수가 많다. 고령화된 남북한 이산가족 1세대는 가족을 향한 망향의 한을 안고 노령으로 죽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당시 남한에 대한 지원은 16개국에서 군대를 보내고, 6개국에서 의료지원을 했으며, 41개국에서는 물자를 지원하여 총 63개국이 남한을 도왔다. 한편 북한에 대한 지원으로 소련은 개전 초기에 각종 무기를 지원했으며, 중국은 추후에 백만명의 군대를 보내 인해전술로 협력했다.

오늘날 한국전쟁이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전쟁이 된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세계대전에 있다. 당시 참어머님께서는 대모님과 함께 피난민이 되어 유엔군의 도움으로 무사히 한강을 넘어서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셨다. 참부모님 양위분께서 유엔군에 의해 큰 도움을 받은 것이다.

한국전쟁은 섭리적으로 볼 때는 에덴동산에서 시작했던 가인·아벨의 갈등이 마지막으로 대적하는 하늘편과 사탄편의 최후의 일전이었다. 선과 악의 싸움이요, 유신론과 무신론의 싸움이었으며,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대결이었다. 남북으로 갈라진 한반도는 하늘섭리의 최후에 해결해야 할 선악의 판가리 싸움현장이다.





비전 2025를 한반도에 포커스해 볼 때 갈라진 남북통일의 결정적인 길로 들어서는 모멘텀의 해이다. 2025년은 한국 해방 80주년이 되는 해이다. 많은 예언가들은 2025에는 한반도 통일의 진운이 가득하다고 말한다. 문제는 통일의 과정과 방법이다. 지금 남과 북은 강 대 강 대결 국면으로 초긴장 상태이다. 북한에서는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장거리 미사일과 핵을 개발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 남한은 이미 세계 경제의 Top10에 진입해 있으며 무역량은 세계 6위를 마크하고 있다. 2019년, 이미 세계에서 7번째로 3050(국민소득 3만불, 인구 5천만 이상)에 진입하였다. 한편 남북한 개인 소득별 차이는 30:1이며 국가 총생산(GDP) 대비는 59:1로 평가되고 있다. 이런 와중 북한은 국민소득의 26.4%를 군사비에 지출하고 있고 남한은 2.7%의 GDP를 쏟아 붓고 있다. 양 측이 긴장을 완화하고 군사비 생산과 설비에 투자한다면, 2050년까지 약 2천조를 절약하여 단숨에 북한을 산업화하며 식량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참버모님께서는 지난 5월 9일 새로운 조직을 편성하시면서 그동안 참부모님께서 닦으신 UPF의 세계적 기반을 모두 한국으로 가져와 평화적인 남북통일운동에 투입하도록 지시하셨다. 아울러 국내에서는 100만명의 평화대사 확보, 나아가 1천만명의 서포터들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12,000명의 남북통일 강사를 양성해가는 대대적인 통일운동을 즉시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남북통일은 한국의 운명이며 하늘섭리의 완성을 향한 최후의 선악 싸움이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 유물론의 결산인 주체사상과 하나님주의 두익사상과의 일대 사상전이 될 것이다. 통일은 반드시 남과 북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자유평화통일이여야 한다.

참부모님께서는 1991년 직접 북한을 방문하시어 당시 김일성 주석을 만나 이념과 체제를 뛰어넘어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길을 위한 4개 조항을 합의문으로 발표하셨다. 핵심 내용은 남북불가침조약과 북한 핵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내용이었다. 참부모님께서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 하시면서 체제와 이념을 뛰어넘어 남과 북이 함께 사는 길을 모색하자고 제안하신 것이다. 6.25 전쟁으로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산가족이 1천만이며 그 1세대들은 지금 죽어가고 있다. 이는 조건 없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가장 중대한 사안이며 인권 문제이기도 하다.





이 시점에 남과 북은 조건 없이 대화의 창을 열고 남북 간에 관광, 스포츠 등 문화교류 및 상호경제협력 등 비정치적인 교류부터 해야 한다. 남한의 경제력과 기술력에 북한의 무한한 자원과 양질의 노동력이 합해 진다면, 북한은 계획경제로 10년 안에 중진국 대열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 동시에 남북이 통일되면 한반도는 즉시 국토의 크기와 경제력, 군사력에서 독일, 프랑스, 영국에 버금가는 나라가 될 것이다. 참부님 양위분의 기본적인 통일방안은 참사랑에 의한 통일론이다.

한편으로는 북한의 주체사상의 내용과 문제점을 비판하시면서 그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시고 계신다. “밥이 사랑이다”를 실천하는 자세아말로 조건 없이 북한 동포들에게 참사랑을 퍼부어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마치 아홉이 자기를 죽이려는 형 에서에게 조건없이 가진 것을 퍼주었을 때에 에서의 강박했던 마음이 풀어지고 원수 같았던 형제가 부모님을 중심으로 다시 만났던 것과 같다. 남과 북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남한 사람이 남한 사람보다 북한 사람을 더 사랑할 때, 북한 사람이 북한 사람보다 남한 사람을 더 사랑할 때 더 이상 전쟁 아닌 참사랑의 의한 통일이 어느날 갑자기 산사태처럼 다가 올 것이다.

‘진인사대천명’이라는 말처럼, 땅에서 사람들이 노력을 다 하다 보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통일의 대하드라마가 남북한의 미래 앞에 찬연히 펼쳐질 것이다.

참부님 소원하시는 그날을 향해 온 세계 통일가는 전진 전진 전진을 다짐하고 비전 2025를 외치며 나아가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그 최일선에 서 있음을 명심하고 천상천하의 천지인참부님의 섭리에 24시간 정령하여 천운이 하늘 조국을 통일하는 그 모멘텀을 우리 생애에 맞이하는 통일의 용사가 되자. 통일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2023 피스로드 통일대장정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참전 22개국 병사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며,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의 뜻에서 마련된 ‘피스로드 통일대장정’ 행사가 160개국 약 40만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시다발적으로 개최됐다.

아이슬란드에서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천일국 11년 천력 6월 4일(양 7.21) 화산을 향한 위대한 행진(15km)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각계각층의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기후 변화로 인한 사람들의 불안과 절망을 함께 나누고 기후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금 일깨우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또한 파라과이 아순시온에서는 ‘평화를 위한 걷기’를 주제로 천일국 11년 천력 6월 12일 우정을 다지는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를 위해 참석한 천주평화연합(UPTF), 세계평화여성연합(WFWP), 대학원리연구회(CARP), 세계평화청년학생연합(IAYSP)의 회원들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신통일한국, 신통일세계를 위한 문선명·한학자 총재님의 실천 운동을 소개하며 세계평화를 위한 불꽃이 절대 꺼지지 않기를 희망하며 위한 행보가 멈추지 않기를 희망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멕시코 시티 제9회 피스로드가 ‘평화를 선도하자’라는 주제로 천일국 11년 천력 6월 13일 아즈테카 스타디움에서 자전거 종주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멕시코시티 UPF를 비롯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FFWPU), WFWP, IAYSP 등 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피스로드 통일대장정’이 ‘평화는 나로부터’라는 참부모님의 슬로건을 내걸고, 지역 인근 경찰 및 행정 안전부의 지원을 받아 원활하게 진행됐다.

아이슬란드, 파라과이, 멕시코시티에서 진행된 2023 피스로드 통일대장정은 환경과 한계를 극복하고 피스로드 취지에 공감하며 지역별 종주단과 함께 라이딩을 펼치며 승리적으로 성료됐다. [🔗](#)



2023 하계수련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미래세대를 위한 ‘2023 하계수련’이 전 세계적으로 성황리에 개최됐다.

신한국

신한국 본부 청년학생국 주관 미래세대 성화, 청년수련이 신앙과 영성 개발을 위한 교육이 HJ천주천보 수련원에서 개최됐다. 하계 여름방학 특별수련으로 개최된 청년 1차(양 6.26~7.3, 211명)·2차(양 7.8~15일, 132명) 수련 및 성화 1차(양 7.22~28, 330명)·2차(양 8.5~11, 313명)수련에는 전국의 전도 대상자, 휴면 식구, 정 식구, 청년 공직자가 참여한 가운데 청년 및 성화학생들은 참부모님과 종적으로 정렬하고, 신앙성장을 위한 통일원리, 참부모님 생애노정, 절대성 교육을 목표로 진행됐다.



신북미

미국

신미국 본부 주관 전국 오션 챌린지가 천일국 11년 5월 16일부터 6월 8일까지(양 7.3~25) 알래스카 코디악에서 개최됐다. 알래스카 코디악 여름 수련에는 미국, 한국, 일본, 안도라 전역에서 26명의 청년들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1970~80년대 참부모님께서 행하신 해양섭리, 환태평양 섭리에 대해 교육을 받고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캐나다

캐나다 몬트리올 YSP 주관 2세 청소년 여름 캠프가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주제로 천일국 11년 천력 5월 29일부터 6월 6일까지(양 7.16~23) 개최됐다. 이번 여름 캠프에는 총 70명의 청소년이 참석한 가운데 YSP 공직자와 하나 되어 대자연에서 이뤄지는 캠핑, 하이킹, 야외 활동 등을 통해 하늘부모님을 체휼하고 상대를 위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신유럽

러시아

러시아 성화 및 청년 수련이 여름방학을 맞아 천일국 11년 천력 6월 6일부터 13일까지(양 7.23~30) 개최됐다.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다양한 연령층과 1세, 2세권을 고려하여 진행된 이번 수련은 10개 이상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방학을 맞은 성화 청년들은 이 기간 통일원리, 생태환경 프로젝트, 스포츠 활동 등을 통해 말씀과 하나 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알바니아

알바니아 여름 수련이 천일국 11년 천력 5월 23일부터 6월 8일까지(양 7.10~25) 15일간 성황리에 개최됐다. '통일원리와 참부모님의 생애와 업적'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수련을 통해 신알바니아 식구들은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께 정렬되고 참석자들 간의 깊은 형제애를 느끼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리투아니아

리투아니아에서는 2세 성화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계 여름캠프를 천일국 11년 천력 6월 6일부터 11일까지 개최됐다. 천혜의 자연조건을 벗 삼아 진행된 여름 캠프는 오픈 마인드를 갖고 가정 속에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사회 속에서 소통하는 방법을 이야기 함으로써 서로의 생각을 교류하고 새로운 문화에 매료되어 신선한 변화를 모색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신중남미

브라질

브라질 YSP 주관 제2차 미래세대 양성을 위한 수련이 천일국 11년 천력 5월 25일부터 6월 6일까지(양 7.12~23) 12일간에 걸쳐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예술, 문화, 경영, 인성교육, 미디어 중 하나의 영역을 선택하여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체험할 기회를 가지며 개인의 능력을 발견하고,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의 사랑과 연결되어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니카라과

니카라과 YSP 주관 성화학생 하계 원리 수련이 천일국 11년 천력 6월 13일부터 15일까지(양 7. 28~30) 개최됐다. 이번 하계수련은 원리강의를 비롯하여 순결 강의, 신앙 생활지도 등을 통해 인격 단련의 시간으로 마련됐다.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는 2세들을 위한 여름 수련을 3일 수련(양 7.19), 7일 수련(양 7.16~22), 성화 어린이 수련(양 7.26~28)으로 나누어 효과적으로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혼동회, 원리강의, 자서전 읽기, 스포츠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미래세대의 문화정책을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



신아프리카

모잠비크

모잠비크는 하계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축복후보자를 위한 21일간의 통일원리수련을 천일국 11년 천력 5월 16일부터 6월 6일까지(양 7.3~23) 실시했다. 참가자들은 통일원리, 참부모님 생애 노정을 들으며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앞으로의 인생관, 가정관을 확실히 하여 하늘을 중심한 이상가정을 이루겠다는 결의를 확실하게 다지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베냉

베냉에서는 하계 여름수련의 일환으로 천일국 11년 천력 6월 13일부터 25일까지(양 7.24 ~ 8.11) 21일 원리수련 및 전도활동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참부모님의 통일원리와 생애교육을 통해 올바른 신앙관, 생활관, 비전을 갖는 시간을 가졌다.

카메룬

카메룬 여름 수련이 천일국 11년 천력 5월 15일부터 6월 6일까지(양 7.2~23) 21일 수련(양 7.2~23), 7일 수련(양 7.17~23)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이 기간 통일원리, 통일사상, 인성교육 등을 통해 인격 수양의 계기를 마련했다.

코트디부아르

코트디부아르 청년학생국 주관 제1회 탑 캠프(TOP CAMP)가 천일국 11년 천력 5월 29일부터 6월 6일까지(양 7.16~23) 9세~17세를 대상으로 다채롭게 개최됐다. 이 기간 참석자들은 원리강의, 참부모님 생애노정, 교회 전통 등에 가르침에 깊이 공감하며 신앙고백을 통해 형제애와 가족애를 회복하고 하늘부모님에 대한 참부모님의 효정의 심정을 상속받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신미국 천심원 봉헌식 및 특별정성

신미국 천심원 봉헌식과 천심원 특별정성이 천일국 10년 천력10월19부터 20일까지(양 11.12~13) 미국성직자협의회(ACLC), 대한민국성직자협의회(KCLC), 청년성직자협의회(YCLC)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신미국 라스베이거스 국제평화교육센터(IPEC)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신미국 가정연합 식구들이 총 540여 명 참석했으며, 신미국 전역 ACLC 회원과 신한국 5개 지역 KCLC 회원 30여 명도 포함됐다.

참부모님 천보섭리 이해와 더불어 조상해원식과 조상축복식으로 진행된 행사는, 신미국 전체가 성령으로 하나되어 평화세계를 이루어 나가자는 의지를 다지는 장으로 마련됐다. 이어 주말에는 YCLC 지도자 수련회가 특별행사로 김기훈 신미국 천심원 원장을 중심 삼고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신미국을 되살리자는 참부모님의 깊은 심정에 공감하며, 차세대 목회자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에 힘썼다.

이후 천심원 봉헌식은 뉴욕의 태리타운의 벨베디아 수련소, 뉴저지의 클리프, 텍사스주 달라스, 워싱턴 D.C의 워싱턴 타임즈,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노스캐롤라이나주 트라이앵글과 더럼, 조지아주 아틀란타,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일리노이의 시카고, 로스앤젤레스를 포함하여 신미국 전역에서 대대적으로 실시됐다. 신미국 가정연합 식구들은 각 지역에 마련된 천심원 기도실을 통해 21일간의 특별철야정성은 물론 40일 특별수련을 통해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

천심원 기도실의 열기가 끊임없이 지속된 가운데 HJ천보 특별정성이 천일국 11년 천력 5월 7일(양 6.24) 뉴욕 태리타운 벨베디아 수련소에서 실시됐다. 이날 행사를 위해 미국 전역에서는 824명의 가정연합 식구들과 2세 권이 정신적 부흥과 갱신을 위해 참석하며 하늘부모님과 참어머님의 사랑 속에 천심원의 희망을 체험했다. 



소감 및 증언

애틀랜타, 조지아주: 다이앤과 일리아 핵(2세가정, 애틀랜타 가족 교회 목사)

천심원 기도를 드리던 중 하늘에서 오늘은 모든 식구가 천심원에 와서 기도해달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내용을 하늘부모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예배 이후 식구들에게 그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참석한 2세 권을 포함한 전체 식구들이 예배 이후 천심원 기도정성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했습니다. 이날 천심원 기도정성을 들었던 많은 식구의 증언에 따르면, 오늘 받은 영적 경험을 바탕으로 '매일 천심원 기도회에 참여하고 싶다', '축복 받기 위한 교육을 받아야겠다', '교회 활동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겠다' 등 참 감동스럽고 은혜로운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천심원을 통해 우리 공동체에서는 믿을 수 없이 많은 영적 유대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참여머님 신미국이 다시금 영적으로 재탄생될 것이라는 사실임을 확신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텍사스 주 댈라스: 존 모네스테레

솔직히 천심원 봉헌식에 참석하려고 하니 장애를 가진 자녀 양육을 비롯하여 다양한 핑계만 떠올랐습니다. 그러다 사고를 전환하는 계기가 마련됐고, 저는 결국 천심원 봉헌식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회에 참석한 저는 간절히 기도를 드렸고 무엇보다도 저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봉헌식 이후에도 저는 장소 불문하고 기도를 드리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변화된 제 자신을 보며 제 아내는 '천심원을 집으로 가져온 것 같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의 심정으로 자신을 성장시키며, 가족과 아벨과 하나되기 위해 변화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 예수님의 은혜의 결과물이라 생각합니다.





워싱턴 D.C.: 알렌 캔들레아제

어제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천심원 봉헌식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촛불이 켜지고 모두가 기도에 임했을 때 성령이 방안을 가득 메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기저기에 선한 영들이 자리 잡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계에 계시는 참아버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었고, 그에 따른 답을 얻게 된 경험은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신미국의 모든 사람이 천심원을 경험하게 된다면 강한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의 뜻과 일치하여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워싱턴 D.C.: 리비 조 헨킨

제 평생의 그리움은 오직 하늘부모님을 경험하고 하늘부모님을 뵈는 일입니다. 그래서 워싱턴에 천심원 기도실이 마련된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무척 흥분되고 설레었습니다. 이후 천심원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하늘부모님을 만나기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천심원 21일 특별철야정성을 완료하던 날, 저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던 중 갑자기 금색 원통이 위에서 내려와 저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 내 제 앞뒤를 휘감아 제 온기를 전해주더니 원통에서 나온 빛이 방안 전체를 돌고 밖으로 뿔어나갔습니다. 그것은 분명 하늘부모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늘부모님은 언제나 저와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그 순간 천심원을 통한 저희의 경험이 세상으로 빠르게 나갈 수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라스베이가스(IPEC): 동남부 지역 수석 목사인 아킬레 아콜라세 박사

김기훈 신미국 천심원 의장과 데미안 던클리 신미국 대륙회장 지도아래 진행된 라스베이거스 천심원 새출발 워크숍에 참여한 저는 천심원에서 기도를 드리던 중 저의 영혼이 솟아오르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승천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강림하셨던 오순절과도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저는 금번 워크숍을 통해 참석자 모두가 독생녀 참어머님과 하나되어 참된 자녀로서 참어머님을 세상에 알리고 하늘부모님의 뜻을 전파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이후 워싱턴에 돌아온 저는 워싱턴 천심원 기도회에 참가하며 또 다른 심오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저를 누군가가 만지는 느낌이 들더니 이내 머리에서 발 끝까지 너무 큰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없이 벅차오르는 마음을 견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전율은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의 심정과 같다고 느꼈습니다. 이후 저는 참어머님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기 위해 책임을 다해야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어머님의 사랑 속에 마련된 천심원은 제 삶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라스베이가스(IPEC): 짐 부스비, 웨스트버지니아 주 의회 지도자, 의사당 가족 교회

독생녀 참어머님의 최근 소식과 말씀을 접하기 위해 라스베이거스까지 비행기로 이동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독생녀 참어머님의 생애와 통일원리에 대한 내용을 광범위하게 살펴봤습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 굉장히 새로운 길을 향해 큰 미션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저의 큰 기대와 희망이 신미국 전역에 공유되길 기도드렸습니다. 그렇게 라스베이거스 천심원에 도착한 저는 참어머님의 심정 속에 제 영혼이 정화됨을 느꼈습니다. 워크숍 이후 메릴랜드주에 도착한 저는 보다 강력하고 분명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천심원 기도실에서 드렸던 제 물음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3주가 지난 현재까지도 그 꿈에 대한 느낌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천심원은 모든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참어머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미국 전체가 그 선물에 접붙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이논 ‘그림자 없는 삶’ 국제 청년 워크숍

하이논 국제 청년 워크숍이 라틴 아메리카 순회를 시작으로 전 세계적으로 실시됐다. 하이논은 참부모님께서 말씀하신 통일원리를 바탕으로 ‘정오정작’, ‘그림자 없는 삶’, ‘절대성의 삶’을 세상에 전파하고자 하는 사명을 가지고 미국에서 시작된 국제 성교육 NGO 단체이다.

하이논은 솔직함·용서·용기·온전함·책임보고의 문화를 강조하며, 순결·절대성의 가치를 실제 삶에서 적용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가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건강한 성장, 건강한 가정, 건강한 육아를 위한 실질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도미니카공화국 몬세뇨르우엘 주 핀카 아르모니아 이 파스에서는 천일국 11년 천력 4월 20일(양 6. 17~18) 하이논 국제청년워크숍이 1박2일간 진행됐다.

워크숍을 통해 42명의 청년들은 투쟁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강력한 비전 수립, 올바른 성 지식 습득, 개인 회복 프로그램 등을 통해 개인 성장은 물론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사회,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이어 코스타리카 하이논 국제청년워크숍이 천일국 11년 천력 5월 6일~7일(양 6. 23~24) 1박2일간 실시됐다. 주말 기간 워크숍에 참석한 52명의 중남미 전역에서 참석한 청년들과, 20명의 페루·아르헨티나·브라질·과테말라·니카라과·멕시코에서 참석한 청년들은 다음세대를 위한 건강하고 안전한 성 가치관 이해, 음란물과 자위행위의 극복 방안, 부부 관계 회복 등에 대해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 공유하며 고민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소감

이들간의 워크숍을 통해 제 삶에 일어나는 어려움과 고통을 깨닫고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 삶의 악습과 위험 그리고 축복의 마법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CARP와 하이눈에 진심으로 큰 감사를 드립니다. 축복받은 커플로서 제 미래에 대한 훨씬 명확한 방향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이눈 워크숍은 정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비록 세미나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이 풍부하고 완벽했습니다. 문제, 기원, 작동 방식, 식별 방법 및 대처 방법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이었습니 다. 전반적인 답변이 일상 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었기에 더욱더 신뢰가 형성되었습니다.

섹슈얼리티 교육을 받은 것이 처음은 아니지만, 그와 관련된 많은 주제와 감동을 주는 세부내용을 교육받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중독에 대한 문제를 겪고 있고 오랫동안 이에 맞서 싸우려고 수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실상 왜 그만두어야 하는가에 대한 타당성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명확한 목적과 지지가 없었기에 많은 부분에 실패가 거듭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워크숍을 통해 그간 궁금했던 부분들이 해소되었습니다.

워크숍 기간 저는 과거에 제가 했던 나쁜 일들과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차분히 반성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금번 워크숍이 많은 도움이 되었기에 하이눈은 제 삶에 큰 도움으로 남아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 삶의 목표와 계획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이전에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항상 외롭고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번 워크숍을 통해 저는 마음 깊은 곳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많은 자매들의 공통도 알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저 자신에 대해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마련해준 하이눈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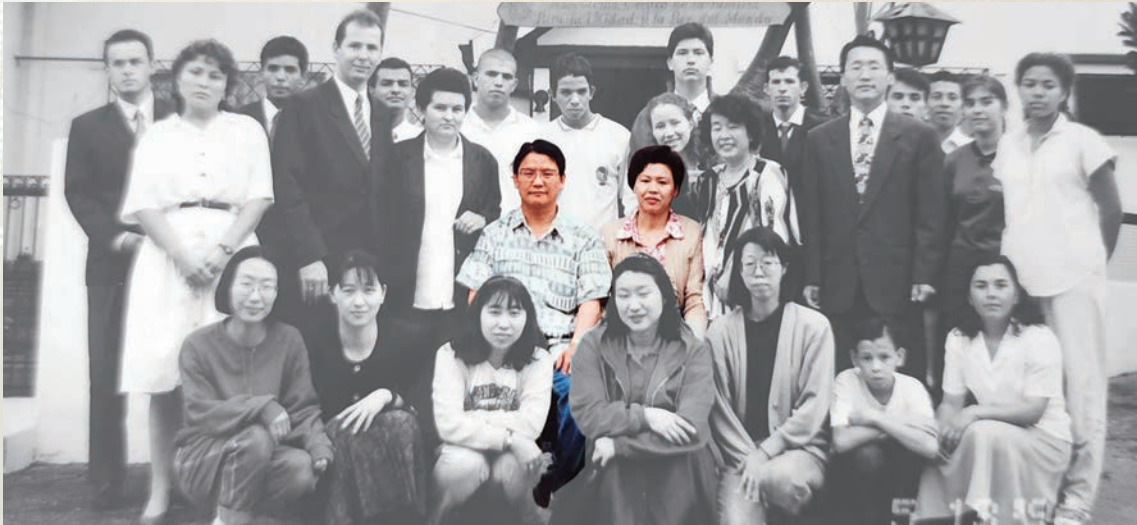
코스타리카에 영원히 잠들다

김중수 코스타리카 국가메시아 회장 사모인 김매자 여사 성화 3주기(양 20. 7. 29 성화)가 천일국 11년 천력 6월 11일 생전 그녀의 소망에 따라 선교지인 코스타리카에서 수목장으로 거행됐다.

수목장의 수목이 2003년 김중수 회장과 김매자 사모가 직접 심은 나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

한국에서 공직생활을 하던 중 (양) 1996년 5월 13일 코스타리카 국가메시아로 임명된 김중수 회장은 그의 동역자인 김매자 사모와 더불어 타국에서 25년 이상 오직 뜻 성사만을 위해 동분서주 고단한 삶을 살았다. 당시 이름도 생소했던 코스타리카에 선교사로 천명을 받아 무작정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빈곤한 세파와 고난 그리고 시련의 일상이었지만 한 명 한 명 늘어나는 선교지의 식구들 덕분에 위안과 행복을 받았다. 하늘의 큰 뜻을 바라보며 오직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의 이상세계 실현을 목표로 걸어온 길이었다.

김중수 회장은 머나먼 선교지에서 자신보다 더 큰 희생으로 긴 시간 외로움과 희생을 견뎌낸 인생의 동역자 김매자 사모를 향해 애절한 고백의 다짐을 하는 듯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이날 참석한 코스타리카 식구들 역시 하늘의 위대한 섭리와 참부모님의 말씀을 위해 한평생 희생한 김매자 사모에 따뜻한 위로와 사랑의 인사를 나눴다. 



파라과이 신임 대통령 취임식 경축 UPF 초청

산티아고 페냐 팔라시오스 파라과이 신임 대통령 취임식이 천일국 11년 천력 6월 29일(양 8.15) 파라과이 아순시온 로페즈 대통령궁에서 개최됐다.

이날 취임식에는 이웃 국가인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과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 스페인의 필리페 6세 국왕이 참석했고, 대만의 라이칭더 부총통 등 100여 개국에서 대표단이 함께 하며 양국간 우의를 과시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우호 단체 천주평화연합(UPF)에서는 펠릭스 코로넬 파리냐 파라과이 서부 2지구 UPF 사무총장 및 7개 기관(IAPP, IAED, IMAP, ISCP, IAAP, IALP, IAACP)의 대표가 자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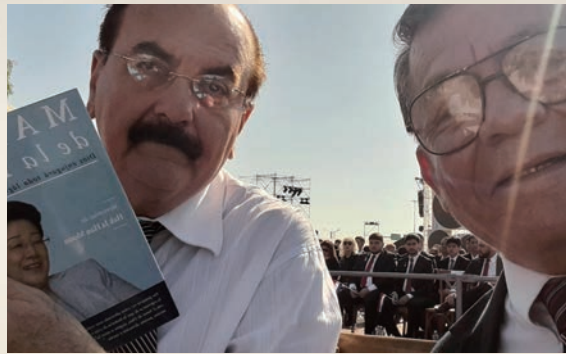
이는 지난 10년 동안 프랑코 대통령을 포함한 국회의원, 각계지도자들에게 1대1로 통일원리를 가르쳐 온 결과이며, 레다 프로젝트로 인한 결실이다.





페냐 대통령은 이날 취임 연설에서 “수평적 합의를 추구하는 지정학적 비전을 가지고 동맹과 협력을 구축할 것이다.”고 전했다.

파라과이 UPF는 문선명·한학자 총재 양위분의 가르침인 통일원리와 참부모님 생애노정이야말로 지구촌 분쟁을 종식하고 평화를 위한 행보임을 확신하며, 이를 위해 공생·공영·공의의 비전 실현을 중심한 활동 방향 설립과 사업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아울러 참어머님 말씀에 따라 파라과이 가정연합을 포함한 전 기관이 하나 되어 하늘부모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청년 선교사 양성과정 4기 수료식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 신아프리카 카메룬 청년선교사 양성과정 4기 수료식이 천일국 11년 천력 6월 13일(양 7.30) 카메룬의 수도 야운데에서 개최됐다.

수료식에는 카메룬 협회장을 비롯하여 장 피에르 카디마 신아프리카 대륙회장, 신아프리카 YSP 사무총장, 훈베지 소셜로바 신아프리카 청년특사 및 지역 청년 지도자가 참석한 가운데 온·오프라인(zoom, 100명)으로 진행됐다.

선교사 양성과정은 카메룬 가정연합 청년선교사가 정식 파송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교육과정으로 1년 동안 선교 이론, 원리강의, 참부모님 자서전 훈독, 인성교육, 전도와 만물복귀 훈련을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과정이다. 4기 양성과정은 양 2022년 8월 1일 40일 워크숍을 기점으로 시작됐다.

신아프리카 YSP 사무총장은 “365일간의 임무를 마친 청년선교사들의 진정한 임무가 시작되는 날이다. 내 의지와 비전을 앞세우지 말고, 하늘부모님과 참여머님의 뜻에 정렬하여 이끄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선교사가 되길 바란다. 훈련받은 부분들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선교 훈련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일관성 있게 진행되어 개인성장은 물론 참여머님의 소원이 성취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수료식은 훈련 경과 보고회, 수료증 전달식을 통해 청년 선교사 4기 훈련생들을 격려하고, 수료를 진심으로 축하하는 축하 메시지와 축도로 마무리됐다. 



1975년 선교사에게 바치는 헌사

크리스텔 베르너, 폴 베르너 가정

말씀에 따르면, 1960년부터 1967년까지 7년, 1974년까지 7년, 1981년까지 7년은 황적 세계시대로 발전해 넘어간다. 제1차 7년노정은 가정적으로, 제2차 7년노정은 민족적으로, 제3차 7년노정은 세계적으로 섭리적 고속도로를 닦기 위한 제물 기간이었다.

참부모님께서는 1975년 2월, 미국 정부에 국제기동부흥단(IOWC)을 등록하신 후, 127개국 선교사를 확정하시며 선교사 파송 전 그들의 사명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주셨다. 1960년 초 가정연합에 입교한 우리 가정은 캘리포니아주 패서디나에 머물며 오스트리아 국가지도자로서 당시 IOWC 활동 지원은 물론, 독일 선교사 파송 및 다양한 활동에 대한 임무를 맡았다.

참부모님께서는 전 세계에 파송되는 선교사들은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선교국에 5월 1일까지 들어가야 한다는 지침을 주셨다. 참부모님 말씀에는 절대 불가능이란 없었다.

우리 가정은 경험을 해본 적도 없고 어린 탓에 부족함이 느껴졌지만, 역사적인 한때를 위해 둘이 하나된 가운데 정성을 쏟아 부은 결과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의 보호하심에 파송된 선교사들을 통해 많은 기반이 마련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

당시 참부모님께서는 세계사적 운명의 판가림 속에서 “내가 선교사들을 수많은 나라로 보내는 이유는 하늘부모님을 중심한 말씀과 삶의 방식이 지구 곳곳에 퍼져나가게 하기 위함이다. 선교사들은 자신이 속한 국가를 위해 봉사해야 한다. 타인을 위해 행한 모든 일은 후대에 자손들을 위한 일이 될 것이며, 미래 세대들에게 항상 기억 될 귀중한 유산이 될 것이다.”는 말씀을 주셨다.

또한 참부모님께서는 적국이었던 일본, 미국, 독일의 선교사는 삼위일체가 되어 한 팀으로 조직하시며 “만일 일본인, 미국인, 독일인이 연합하여 성공한다면 하늘은 더 큰 축복으로 갚아 주실 것이다.”며, “승리의 깃발을 들고, 마을은 마을 대로, 시는 시대로, 군은 군대로, 모든 방방곡곡의 한 집





도 남기지 않고 거기에서 승리의 깃발을 날려라. 이 기간 우리는 하나님과 세계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쳐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젊은 선교사들은 국적, 종교, 피부색이 달라도 참부모님을 대신한 입장에서 절대 복종의 자세로 위하는 삶의 표본이 되어, 격전지로 향했다. 오직 참부모님의 말씀만이 재산이요, 무기가 되었다.

우리 가정은 선교사 파송에 있어 무엇보다도 열악한 환경에 놓인 선교사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현지 대사관과의 소통의 필요성에 대해 교육하였으며, 정기적으로 본부와의 보고체계를 통해 선교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왔다.

1975년 5월 1일까지 반드시 선교국에 도착해야 한다는 참아버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 부부는 그 때까지는 독일에 선교사가 파송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 지원했다.

4월 말, 마침내 파송된 선교사들은 오직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의 심정과 뜻을 전파하겠다는 일념으로 세계적인 무대에서 활동을 펼쳤다. 매달 편지와 사진, 전화 등을 통해 자신들의 생생한 소식을 전해준 선교사 전체를 위해 우리 가정은 항상 기도와 사랑으로 그들과 동행했다. 이후 참부모님께서 우리 가정은 미국의 새로운 미션을 받아 선교사 파송 임무와 작별을 고해야 했지만 섭리적으로 역사적으로 귀한 시기에 선교사 파송 임무를 수행하면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음에 참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올리고 싶다.

아울러 가족을 떠나 온전히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의 섭리 속에서 어려운 환경과 수많은 고통을 이겨내며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아시아 등지에서 묵묵히 맡은바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1975년 파송된 선교사를 포함하여 모든 선교사와의 만남은 잊지 못할 큰 경험이 되었다. 추후 그들의 행보에도 머리 숙여 감사를 표하며,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의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 드린다. 



